



○치악산 구룡사 숲밭에서 열린 불교문화와 문학동호인의 만남은 불교문화이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한 자리였다.

구룡사 '개달음과 문학' 토론회 지상중계

“왜 불교문화인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불교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지혜를 통해 추구되는 최상의 가치이며 궁극적인 진리 사상이라 할 때 거기에 살아 숨쉬는 호흡이 되는 것이 문학의 언어라는 것이다. 생명이며 힘의 원천인 언어가 무상의 지혜와 궁극적인 진리를 수용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어디에 서도록 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는 전적으로 불교적인 것을 받아들인 작가의 몫이다.” 지난 5월 조계종 주회

상투적 불교찬사 언어보다 인류공감 '꽃의 문학' 되어야

불교문화세미나에서 홍기삼교수(동국대 국문과)의 '불교문화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발표 요지. 이러한 불교문화의 개념정립과 불교의 깨달음이 문학을 통해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를 깊이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지난 9·10일 원주 치악산 구룡사에 마련됐다.

'개달음과 문학'이란 큰 주제를 가지고 개최된 이 행사는 오는 10월말로 마감되는 불교문화현상 공모에 일련의 관심과 함께 환기시키고 현상공모가 원만히 추진되어 좋은 작품들이 많이 창작, 응모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마감 두달여를 앞두고 중단추진회는 처음으로 열려 관심을 모았다.

불교문화현상공모운영위원장 고은씨(사인)는 '개달음과 문학' 주제의 강연에서 "종교와 문학은 불가분이며 본질적인 관계"라며 "상투적인 불교찬사나 종교적 귀의자로서의 문학보다는 '나'라는 프리즘을 통해 인류전체의 의식과 삶을 담아내는 공생의 문학, 나아가 꽃의 문학이 되어야 할

구룡사=이경숙 기자

불교연극 '뜰앞에 잣나무'

무대에 올려진 10·27 법난 인연과보 얽힌 세속 '옛보기'



오랜 침체에 빠져있던 불교연극계에 감수처럼 갈증을 적셔줄 정통불교연극이 오는 9월 선보인다.

지난해 '늙은 창녀의 노래'라는 연극으로 큰 화제를 모으며 관객몰이에 성공한 극단 '완자무늬'(단장 김태수)에 의해 9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뜰앞에 잣나무'가 그것. 화두공안중 하나인 '뜰앞에 잣나무'를 제목으로 한 이 연극은 현대 한국불교사의 최대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음에도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10·27법난을 소재로 해서 스님이 회개를 썼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뜰앞에...'는 10·27법난으로 인해 폐쇄된 어느 가정을 배경으로 종교와 권력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 인간, 남과 여, 상식과 비상식이 부딪치는 삶의 모습을 그린 상징적인 '심우도'.

'10·27법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서지고 황폐화되어 질 수 밖에 없는 개인과 가정의 아픔을 그려내었습니다. 모든 인연과 행위의 시적인 묘미와 같은 또 다른 과보와 인연을 만들고 그 현상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개인과 역사에서 누구도 방관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일깨우고 싶습니다.'

연출가 김태수씨는 이번 작품으로 한층 동양 특히 불가(佛家)의 사유에 빠져들었다고 등



“어느 누구도 인연과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부처님의 사상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연극을 봄으로써 우리의 왜곡된 본성을 환원시키고 우주와 자연, 생명과 인간의 삶이 현연체임을 깨닫고 우리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담스님(전 법주사 교무)은 출가 20년만에 부처님에게 진심을 다스리다 같은 것 같아 앞으로 극단 '완자무늬'와 함께 '철학의 문고리잡기' 등 심우도 연작시리즈를 계속 무대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화순 운주사(주지 법진)는 화순군청과 함께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운주 문화대축제를 개최한다. 3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운주사 경내와 화순군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문화제에는 '불교, 인간과 예술의 만남'이란 주제의 야외설치 미술전, 운주사의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심포지엄, 운주사와 불을 세움으로써 통일을 염원하는 의식인 와불 세우기, 천불천탑세우기 등 다양한 불교관련 문화행사가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 의해 꾸며진다.

신라 구산선문종 가지산문을 개창한 초조·2·3조인 세 선사(道義 廉順 普照)의 진영이 동



○순연철교수가 그린 가지산문을 개창한 초조 도의(왼쪽) 2조 여거(가운데) 3조 보조체증스님 진영.

가지산문 개창 세 선사 진영 순연철씨 완성 보림사 '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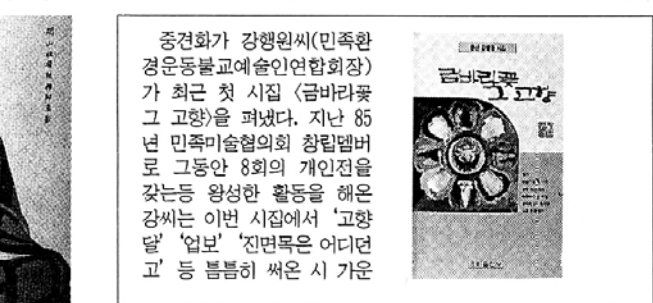
에 봉안됐다. 완성에 4개월이 걸렸다는 순연철교수는 "통도사 금강간사를 참조하는등 고증에 철저를 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용스님을 비롯 교계·문화재인사등 5백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대웅전 복원불사를 위한 철조비로자나불(국보 제117호) 이은식도 함께 봉행됐다.

불심시심 <59>

마음의 때를 씻자
暮暮朝朝不盡期 (모모조조부진기)
年光暗向此間移 (년광암향이칸이)
(연광암향차간이)
囊中縱有長生藥 (낭중종유장생약)
(낭중종유장생약)
鏡裏其如兩鬢絲 (경리기여양빈사)
(경리기여양빈사)
世事無窮何了日 (세사무궁하요일)
(세사무궁하요일)
人生有限幾多時 (인생유한기다시)
(인생유한기다시)
急須洗滌諸心垢 (급수세척제심구)
(급수세척제심구)
惟我滿腔百爾思 (유어미타백어사)
(유어미타백어사)

시간의 흐름이란 쉽다. 이 걸없는 시간의 연속을 사람들이 삶의 마디로 표시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붙여놓은 이름이 아침이나 저녁이나 하는 명사들이다. 이 아침저녁을 무한히 흐르는 시간단위 속에서 대인시킨다면 무슨 시간단위의 거리가 생기는가. 아무 의미없는 것이다. 그저 지나가는 한 순간의 빛일 뿐이다. 입입리에 이동되고 있는 시간의 빛일 따름이다. 이 시에서 남몰래 아득한 향향(嚮向)은 표현은 이런 면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하겠다. 누구도 모르게 이동하고 있는 해의 빛(年光)이다. 이 이동되는 해의 빛에 의하여 생로병사는 삶의 마디가 옮겨지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의부적 물질작용으로 병고 죽는 것으로 오만하기가 자랑불사의 약이 있을 것이라 하여 그것을 구하기위해 신명을 바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약을 구했다하여 호주



화가 강행원씨 첫시집 출간

'금바라꽃 그 고향' 틈틈히 써온 51편 모아
중견화가 강행원씨(민족화경운동불교예술인연합회장)가 최근 첫 시집 <금바라꽃 그 고향>을 펴냈다. 지난 85년 민족미술협회 창립멤버로 그동안 8회의 개인전을 갖는등 왕성한 활동을 해온 강씨는 이번 시집에서 '고향 달' '업보' '진면목은 어디던' 등 불블히 써온 시 가운데 51편을 모았다. 강씨는 "그림으로 다할 수 없는 회화적 조형 생명을 언어적 문자조형으로 조율하는 시도를 늘 꿈꿔 왔다"면서 "이 시들은 존재의 실상인 불성, 우주의 대 생명을 넘어서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명상을 통해 거르고 걸러진 언어들"이라 말한다. 강행원씨는 오는 22일 오후2시 자택내 '윤산화선재'에서 시집출간 기념법회를 갖는다. (02)372-4848

Large advertisement section for '현대불교' (Modern Buddhism) featuring various services and events. Includes: 절터 최적지 (Best Temple Site),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We invite Bodhisattvas for food), 보육사 모집 (Recruitment of Child Care Workers), 불교공예 (Buddhist Crafts),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Wood for Temple and Ancient Hall Construction), 포교당 안내 (Buddhist Center Guide), 기도·회향 보시 방법지도 (Prayer and Repentance Guide), 보시하실 분 (Those who will donate), 학생모집 (Student Recruitment), 광고·출판 대행 (Advertising and Publishing), 승복점 (Buddhist Clothing Store), 부전스님 모십니다 (We invite Buddhist Master), and 神祕한 東洋哲學 (Mysterious Eastern Philosophy).